

남원국제드론제전 '인증 전시회' 획득

드론·로봇 분야 전시회 '공신력'
국제 교류 확대 긍정 효과 기대

남원시의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사를 넘어 정부가 인증하는 행사로 격상됐다.

남원시는 산업통상부 지정 인증기관인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로부터 전시회 인증제도 심사를 거쳐 '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인증전시회'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의 전시 분야에 적용된 것으로 드론·로봇 분야 대표 산업 전시회로서의 공신력과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전시회 인증제도'는 주최기관이 제출한 주요 전시자료를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인증기관(AKEI)이 조사·검증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인증전시회'로 선정,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인증을 통해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의 전시회 지원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으며 해외 네트워크 연계와 국제 교류 확대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의 'K-DRONE TO WORLD FESTIVAL'과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전시부스. (남원시 제공)

'에는 79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드론·로봇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흐름을 공유했다.

또 산업·정책 컨퍼런스와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드론·로봇 스포츠 대회, 글로벌 푸드존 등을 운영해 참여기업과 관람객들이 호응을 얻었다. 나흘간 진행된 행사에 총 24만

6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국제드론제전이 전시회 인증으로 공신력과 브랜드 가치가 한층 높아졌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을 유치하고 국내·외 교류와 산업 네트워킹 확장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 모든 치매 환자에 약제비 지원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제'... 치매안심센터 등록하면 혜택

정읍시가 치매 치료비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모든 환자에게 약제비를 지원한다.

정읍시는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지는 '정읍형 치매책임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늙어나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선제적 조치다. 시

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를 사전에 방지, 공공이 시민의 건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치매 환자다. 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만 하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지원 범위는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을 처방받은 당일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급된다.

한편 시는 향후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한 통합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질 방침이다. 예방 교육부터 조기 검진, 치료 연계, 돌봄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 보완해 '치매 걱정 없는 정읍'을 만들어 나갈 구상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운곡람사르습지 식물자원 집대성

생태도감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발간 132과 850종 정보 수록

고창군이 운곡람사르습지의 풍부한 식물자원을 집대성한 생태도감을 발간했다.

고창군은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식물·함께 찾아보는 우리나라 풀과 나무 1·2'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도감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전문가들이 100회 이상 현장을 누비며 직접 조사하고 활영한 기록의 산물이다. 운곡습지 전역에서 확인된 600여 종의 식물과 인근 지역 식물까지 132과 850종의 방대한 식물 정보가 생생한 사진과 함께 수록됐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백양터부설이'와 '가시연', '진노랑상사화'의 서식 현황은 물론 운곡습지의 생태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논냉이'를 깃대종으로 소개해 학술적 가치를 높였다.

논냉이는 물속에 잠겨 번식하는 독특한 습성을 지닌 식물로 과거에는 흔했으나 현재는 자생지가 파괴돼 희귀종으로 분류된 식물이다. 운곡습지는 논냉이가 큰 무리로 자생하는 소중한 공간이란 게 이번 조사를 통해 재확인됐다.

도감은 단순히 식물들의 소개를 넘어 현장에서 혼동하기 쉬운 유사종들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고창군이 발간한 운곡습지 생태도감 1·2권.

특구성해 생태 관광 가이드북으로서 활용도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고창군은 이 생태도감을 전국 100여개 도서관과 관내 학교, 국가생태관광지역 40여곳 등에 배포, 생태교육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청년 입영지원금 10만→20만원

올해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정읍시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지역 청년들의 사기 진작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입영지원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입영시기 교통비와 여비, 생활준비 비용 등 각종 지출이 많은 상황에 물가상승까지 겹친 부담을 덜어주고자 나온 결정이다.

지원 대상은 혼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 중 입영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이번 입영지원금 인상 지급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입영자가 대상으로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용된다.

기준일 이후 입영자라면 미리 신청해 10만원을 받았더라도 차액인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이수현 정읍시장은 "입영지원금 증액은 병역의 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지역사회가 함께 응원하고 책임을 나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청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보건소, 아동센터 어린이 건강 교실

30일까지 체성분 측정·건강교육 등 제공... 1:1 맞춤 상담도

남원시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16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꿈자람 건강 Jumping 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7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비만 예방으로 체성분 측정, 신체활동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영양·비만, 흡연예방, 음주폐해 예방 건강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지난해 실시한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신체활동 증가 및 식습관 개선 효과와, 비만 위험군 아동의 건강위험 인지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올해는 장기적으로 아동 비만을 감소와 정서적 자존감 향상 등 다각적인 건강효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단순한 체중 측정을 넘어 아동의 체지

방률과 성장 발달 단계를 정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운동·영양·비만 예방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체성분 측정 결과, 체질량지수(BMI)가 95분위수 이상이거나 허리둘레와 키의 비율이 0.5 이상인 아동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얻어 남원 의료원과 연계한 대사증후군 검사(Routine CBC & Diff count)를 포함한 20여 종의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한용재 남원시 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친환경쌀, 제주 공급업체 공모 전국 1위

3월부터 2년간 유치원·학교 등 10만여명 학생 급식 제공

고창의 한결영농조합법인이 제주자치도가 실시한 친환경 쌀 공급업체 선정 공모에서 전국 1위에 올라 제주도 내 10만여 학생들의 급식에 친환경쌀을 공급하게 됐다.

고창군은 제주자치도가 오는 3월부터 2년간 제주도 내 일선 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 등에 공급할 친환경쌀 생산지단지를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추진한 가운데 한결영농조합법인이 전국의 공급업체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평가는 친환경 백미, 찹쌀, 찹쌀현미, 현미 등 유기·무농약 인증 쌀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지원실무위원회의 1·2·3차 심사를 통해 진행됐다.

한결영농조합법인은 최고의 시설에서 전류농약 검사와 품종검사를 통해 철저하게 관리한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쌀을 생산 중이다.

수매 단계에서부터 품질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도정·포장 과정에서도 이력 관리와 위생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박종대 법인 대표는 "서울시 학교급식 친환경 양곡 공급단체 1위 선정에 이어 제주자치도 친환경 쌀 공급업체 선정 공모에서도 1위에 선정돼 고창쌀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며 "기후 변화와 생산비 증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 재배 기준을 성실히 준수해 온 농가들의 땀과 노력이 고창 친환경쌀의 경쟁력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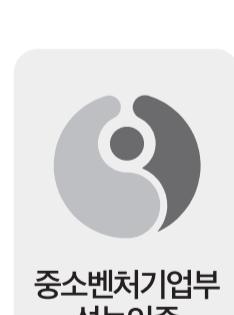
고창군 관계자는 "생산단지 농가들의 꾸준한 친환경 농업실천과 한결영농조합법인의 전문적인 품질 관리 역량이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한 결과"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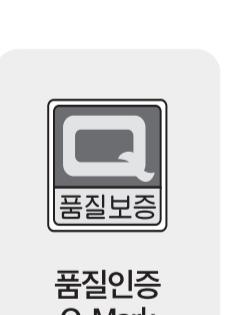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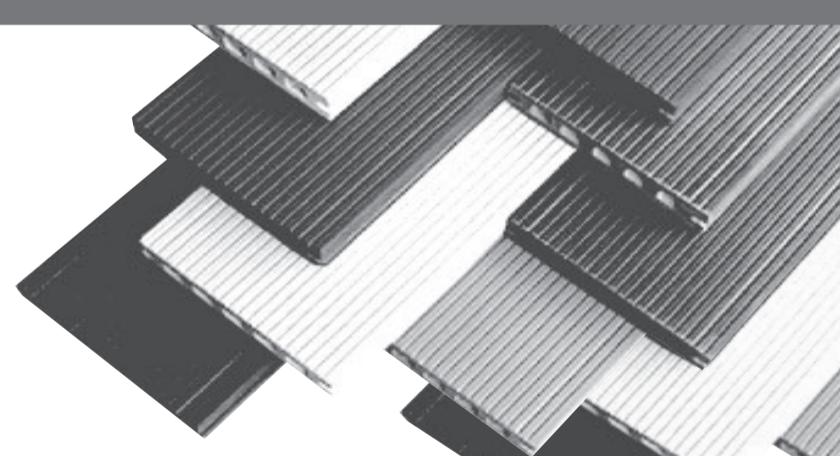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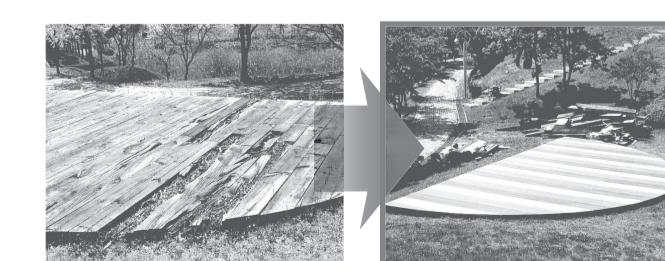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 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 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